

발행처: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발행인: 임기선 요셉  
 주소: 26 Carnarvon Stree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info@sydneykcc.org  
 전화: 02 8756 3333

# 시드니가톨릭신문

## The Korean Catholic News of Sydney

주임신부: 임기선 요셉  
 보좌신부: 전상현 스테파노  
 노호영 미카엘  
 고해신부: 홍 야고보  
 수녀: 최순선 인노첸시아  
 최연숙 디아나  
 윤경남 바오로  
 사목회장: 정영수 사도요한

VOL. 114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달아라.” (요한 14,20 참조) 2014년 12월 1일 (월간)

## 앉아만 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 깊고 영원한 주님 사랑 전해야

11월 12일 시드니 대교구 9대 교구장 안소니 피셔 대주교 착좌식 열려



지난 11월 12일 오후 7시 30분 거룩함과 화려함 그리고 웅장한 분위기가 세인트 메리 대성당 주변을 감싼 가운데 시드니 대교구 9대 교구장으로 임명된 안소니 콜린 피셔(Anthony Colin Fisher OP) 대주교의 착좌식이 열렸다. 이로써 피셔 대주교는 교황청 경제사무국장으로 간 조지 펠 추기경의 뒤를 이어 시드니 대교구를 책임지게 되었다. 이날 세인트 메리 대성당에는 새로운 목

자를 축하해주기 위해 각 교구의 주교들과 사제들, 그리고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과 신자들을 포함한 약 5천명 가량의 인파로 가득 찼다.

격조 높은 음악이 울려 퍼진 가운데 경건하고 위엄있는 이날의 예식이 빛났던 것은 단지 이날 모인 수많은 사람들과 세간의 관심 그리고 방송사 카메라들의 취재 열기만은 아니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위해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보여준 그의 친절함과 배려심이 이 모든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이날 피셔 대주교는 주교좌 성당의 정문에서 아보리진 원주민들 환영 인사를 받으며 성대하게 입장을 하였고 착좌식 미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먼저 교황대사 폴 갈리거 대주교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임명장을 라틴어로 낭독했다.

그리고 이어 조 어셔 몬시뇰이 영어로 다

시 낭독했다. 임명장 낭독이 끝나자 교황대사는 피셔 대주교를 주교좌로 인도해 시드니 대교구 9대 교구장으로 공표하였다. 이 예식은 이날 전례의 가장 중요한 순간 가운데 하나였다. 뒤이어 주교좌 성당의 폴 힐 더 주임신부는 이날 예식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함께 새대주교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를 바쳤다.

피셔 대주교는 자신을 신앙 안에서 사랑으로 길러준 부모에게 감사를 드리며 전례 중 계속해서 부모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줘 교우들의 박수를 이끌어 내었다(하단 오른쪽 사진).

그는 자신의 강론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앉아서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 세상에 직접 나가 주님의 깊고 영원한 사랑을 알려 주님께서 모든 곳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속해서 자신의 소망은 교회 안에서 기쁨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의 거룩한 성사와 전통이 그 품위에 맞게 잘 지켜지며 신학교와 수도원 그리고 청년 단체들이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싹트는 것이라 역설했다. 끝으로 지역 성당, 공동체, 교육기관들이 복음화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때, 그리고 평신도들이 다양한 신학 교육을 받고 그에 걸맞는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하느님께 이 모든 것을 참된 영광으로 돌릴 수 있다고 말하였다.

### 안소니 피셔 대주교는?

안소니 콜린 피셔(1960년 3월 10일 출생)는 시드니 크로우즈 네스트에서 애쉬필드 출신 약사 콜린 피셔와 스페인 출생 글로리아 피셔 사이에서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라캄바 소재 성 테레사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고 유년 시절 주일학교에서 신앙 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 후 피셔 가족은 벨모어, 켄터베리, 와일리 파크에서 살다가 맨리에 정착했다.

그 후 피셔 대주교는 시드니 대학에서 역사학과 법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졸업 후 호주 유수의 로펌회사인 클레이터 유츠(Clayton Utz)에서 변호사로 일하였다. 그러던 중 도미니코회에 입회하여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차원 안에서 가톨릭 신앙을 가르치는 데에 열중하였다.

그는 신학명예학위를 받으면서 멜번에서

사제직을 위해 공부하다가 1991년 9월 14일 와랑가에 있는 홀리네임 본당에서 사제로 서품을 받았다. 그 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생명윤리 박사학위를 받아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호주가톨릭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멜번에 있는 요한바오로 2세 혼인과 가정 연구기관장으로 근무하였다. 2003년 교황 요한바오로 2세로부터 시드니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되었고 2008년 시드니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를 주관하는 코디네이터 역할도 함께 하였다.

2010년 1월 8일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의해 파라마타 교구 제3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어 교구를 이끌어 가다 지난 9월 18일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시드니 대교구 교구장으로 임명되었다.

(편집국 김제인 요셉파나)  
 (사진 출처: The Catholic Weekly)







# 되돌아 본 우리 본당 2014



2월 9일

“신부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대 본당 주임 신부였던 김동규 미카엘 신부가 이임미사를 마치고 홍 야고보 신부와 환하게 웃으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3월 16일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제10대 본당 주임 신부로 오신 임기선 요셉 신부가 서품 25주년 은경축 및 영명 축일을 맞아 신자들의 마음이 담긴 축하의 꽃다발을 받고 있다.



4월 25일

성 금요일에 예수님의 고통을 상징하는 붉은색 제의를 입은 사제가 주님 수난 예식을 거행하기 전 제대에 엎드려 있다.



5월 2일

‘5월 성모 성월’을 맞이해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에게 존경과 감사를 나타내는 화관을 씌웠다.



5월 10일

“아버이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본당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500여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석해 점심 식사 후 오락, 경품 추첨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눴다.



6월 22일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아 시드니대교구에서 주최한 성체거동행렬에 본당 사제들과 신자들이 참석하여 다민족 공동체들과 함께 시내 중심가를 1시간 동안 걸으며 성체의 현존을 호주 사회에 알렸다.



7월 11일

순교자 기념관에서 개최된 ‘열린 마음제’에서 중 고등부 학생들이 댄스, 성극, 노래 등으로 갈고 닦은 솜씨를 무대 위에서 선보이고 있다.



8월 30일

시티공동체에서 교리공부를 한 예비자 10명이 본당에 모여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9월 7일

6주간의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 과정을 마친 약 280명의 봉사자들이 파견예절 중 서로의 발을 닦아주고 있다. 이들은 본당 단체들과 구역 및 반에서 봉사자로 활동하며 활발한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다.



9월 21일

‘본당 친교의 날’ 행사가 뉴잉턴 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전 교우들이 함께 모여 야외 미사 및 친교의 시간을 함께 하며 서로의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10월 7일

시드니 항에 도착한 2014 해군 순항 훈련 전단에 참가한 해군 사관학교 4학년 학생들이 본당을 방문했다.



11월 1일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해 록우드 한인천주교 묘지에서는 선종하신 교우들의 영혼을 위한 위령미사가 봉헌되었다.

**Virtuoso Coffee**  
Roast and Supply

**맛있고 신선한 원두커피를 공급해 드립니다!!!**

\* 연락주시면 샘플빈을 우송해드립니다.  
www.virtuosocoffee.com.au

김세준 다니엘 0401 907 304

**코리아여행사**

국내외 항공권 직접 발권 / 해외 패키지  
성지순례 / 호텔예약

캠시본점 **9787 6633**    이스트우드 점 **9804 1200**

이명순 데레사

**상성한의원**  
한 의사 강성후  
Bachelor of Medicine

“건강은 우리 모두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Strathfield 본원  
1/12 Churchill Ave Strathfield 2135

Lidcombe 본원  
28/1-3 Mary St Lidcombe 2141

- 청구치료 본인부담 없음 (conditions apply)  
TEL: 9746 3537

“사랑을 드리고 신뢰받는 ‘영원’성모치과의 약속입니다.”

**성모치과**  
Gentle Cosmetic & Preventive Dental Care

진료과목  
임플란트 / 치아미백 / 심미치과 / 교정

진료시간  
월~토(오전 9시~오후 6시)

56 Railway St, Lidcombe 2141  
**T 9649 1800**





# 평신도 주일 강론



+ 찬미 예수님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 이 자리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평소 제가 가져온 신앙에 대해 재점검해 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인지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살도록 결심해 보고자 합니다.

저에겐 90세 되시고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맏형님이 고향을 지키며 살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엔 누구 못지않게 다복하신 분인데도 제가 고국을 방문해 뵈 때마다 “사는 것이 허무하고 쓸쓸하다”고 하시면서 “빨리 죽어야 할텐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긴 한숨을 쉬시는 모습으로 모처럼 만난 저를 당황케 하십니다. 저는 이 때마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며 영세를 권유해보지만 형님께서는 한 마디로 “하느님이 어디에 있느냐?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엇이 또 있느냐?” 하면서 신앙 갖기를 거부하십니다. 이럴 때마다 형님을 하느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저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면서도 많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삶이 인생이며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 속에서 경쟁과 투쟁의 연속이고,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불안 속에서 믿을 것은 오직 나 자신 뿐이라는 현실주의 사고를 갖고 계신 저의 형님을 포함한 비신자들의 삶과 사고를 생각해 보면서, 천주교 신자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거쳐 영생의 길을 향한 희망의 여정을 견고 있다’고 생각하니 삶의 본질 자체가 크게 다름을 알 수 있고, 주님께 대한 한없는 감사의 마음도 들었습니다. 비신자들의 눈엔 우리가 가진

신앙이나 신심행위가 나약함이나 위선이나 어리석은 일들로 보여질지 몰라도, 신앙인인 우리의 눈엔 그들이 삶의 본질을 모르거나 잃은 채 방황하면서 감각적 욕구 충족에만 혈안이 돼 허무적대는 현대사회 생활 모습이 오히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는 흡사 구약 성경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와 ‘바벨탑 사건’ 당시의 시대 한 가운데 서 있는 듯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느낌입니다.

최근 언론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8초에 한 명, 1년에 약 80만명이 스스로 희망을 잃은 채 생을 포기하고 자살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 또한 전 세계 193개국 중에서 9번째 경제 대국에 진입하여 풍요를 누린다고 하면서도 자살율이 세계 1위이고, 이혼율 또한 최근 통계 47.7%로 미국(51%), 스웨덴(48%)에 이어 3번째이며, 이런 추세로 나가면 머지않아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갖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물질의 풍요로움이나 감각적 만족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큰 선물로 주신 ‘자유 의지’마저 불공평 운운하며 하느님 사랑을 왜곡하거나 부정하고, 인간 각자의 잘못으로 초래된 아픔과 고통까지도 하느님 탓으로 돌리거나 원망하면서 이 세상에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인 우리는 여러 체험을 통한 삶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경험을 많이 했으리라 믿습니다. 루카복음 15장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로부터 빼앗다시피 받은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알몸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아무 조건없이 달려가 입 맞추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푸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언제나 우리 마음 속에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갈망은 궁극적으로 하느님께 대한 갈망이다’라는 시인 괴테의 말처럼 하느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느님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네비게이션은 작동만 하면 원하는 목표 지점으로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줍니다. 하느님 또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를 위해 만드신 네비게이션을 사용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의 여정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정보에 의존하는 현실이지만, 정작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랑, 기쁨, 평화, 행복을 위한 정확한 정보는 스마트폰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고 바라는 행복의 여정으로 안내하는 네비게이션은 하느님의 네비게이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네비게이션은 지도를 이용해 단순히 원하는 목표 지점만을 가지적으로 전달해주지만 주님의 네비게이션은 주님의 행적과 말씀으로 짙어진 성경과 성전과 우리의 성사로서의 삶을 통해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여 기쁨 속에서 행복의 목표 지점인 하느님을 만나는 곳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때때로 저는 어려움에 처했거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만약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또는 ‘주님께서 나의 처지라면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까?’ 묵상해보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결과는 늘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흔쾌히 응답해주심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주님의 네비게이션을 온전히 믿고 그 가르침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며 하느님의 바라심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만족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줍니다.

1965년 11월 18일 교황 바오로 6세께서 주관하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선포된 ‘평신도 사도직 교령’에서 ‘평신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에서 각자 나름대로 예언직, 사제직, 왕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언직’이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다는 뜻이며,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되고 파견되었으므로 성경과 성

전에 의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직무입니다. 사제직 중 평신도에게 주어진 ‘보편 사제직’은 세례를 받은 평신도가 세상 속에서 예언직, 왕직,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내에서 사제를 도와 사제가 원활하게 성무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것 역시 사제직에 해당합니다. ‘왕직’은 지배자로서의 왕직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왕직을 의미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에게 각자 능력에 따라 다르게 달란트를 주고 돌아와 셈을 하였더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고 두 달란트를 받은 이는 두 달란트를 더 벌여 착하고 성실한 종으로써 기쁨을 나눴으나, 한 달란트를 받은 이는 그대로 땅에 숨겨 두었다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졌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도 각자 능력에 따라 알맞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는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 살아가는 여러 봉사나 직업으로 임무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받은 달란트대로 우선 나 자신부터 복음적 삶으로 변화된 즉 기쁨의 삶을 살면서 내 가정, 내 이웃, 교회 공동체, 내 직장, 사회 등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이던지 복음 전파의 일터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책임감을 가지고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한올 한올까지 헤아리시며 알고 계시는 하느님께 보여드릴 우리 일생의 삶의 열매는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무명시인의 첫 귀절이 떠오릅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기를 원하고 그리워 하던 내 일이다’란 뜻을 묵상해보면서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귀중한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 손에 손 잡고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다 함께 힘차게 전진해 나아갑시다.

아멘.

2014년 11월 16일  
정영수 사도요한 사목회장 겸 총회장

**변호사 이수봉 토마스**  
**LSB LAWYERS PTY LTD**  
시드니 법대 학사(LL.B)/맥쿼리대 회계학 석사/공인회계사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상가임대, 각종계약, 소송, 상해보상, 유언상속  
Level 5, Suite 1, Strathfield Plaza  
Strathfield NSW 2135  
TEL. 9746 3588 FAX. 9746 5722  
MOB. 0425 270 983

**김상진 회계사**  
**세무사**  
**절세 신속 성실**  
▪ 개인/회사 소득세 신고 ▪ 회계사무실 개업 19년 경력  
▪ ABN, GST 회사 설립 ▪ Macquarie대 회계학 석사  
▪ 세무상담/은행융자 상담  
**T. 8756 5522**  
1D, 9 Redmyre Rd, Strathfield (윤중병원 옆)

**바른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장원 안토니오 (Anthony Lee)**  
NSW 주 대법원변호사, 시드니대 법대출업, 성공관대 법대출업, 맥쿼리대 통번역석사.  
**주요 법률서비스**  
교통사고, 음주운전, 민·형사 소송, 부동산, 비즈니스매매, 각종계약서  
Suite 7 Level 1 58 The Boulevard Strathfield  
**T 02 9715 1771, F 02 9715 2771**  
**M 0433 573 213**

**제일종합금융**  
Chell Financial  
홈 · 비즈니스론 · 상업융자 · 건설융자  
오랜 경력의 금융전문가 정문기  
• Commonwealth Bank 14년  
• 제일은행 18년  
• 제일종합금융 9년  
**T. 02 9877 0355 / F. 02 9877 0366**  
**M. 0414 300 394 / Suite 33, 41 Rawson St. Epping**  
(에pping에서 걸어서 2분 거리)





## 교우의 글

# 민들레 홀씨 되어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 올해의 키워드를 뽑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월호'를 생각할 것입니다.

잊지 말자고 얘기해놓고 정치인들도 정부 측도 있고 싶어합니다. '관계자들만의 세월호'로 정말 세월 속으로 침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도 각종 매체를 통해 봤던 그날의 사고 장면이 선명하게 남아 지워지지 않습니다.

노란 물결들이 TV화면을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내 가슴에도 노란색이 묻어나며 민들레가 지천으로 핀 들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잔디 틈새에서 한번 뿌리를 내리면 손쓸 틈 없이 번져버리는 민들레도 이 순간만큼은 잡초가 아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신님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가슴에, 마음에 노란색이 슬픔으로 나를 앓히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물의 공포에 몸서리 치는 민들레들의 애처로운 절규를 들으신 하느님은 하얀 씨방에 날개를 달아 하늘로 곱게 날아오르도록 민들레 홀씨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하신 교황님까지도 가슴에 핀으로 꽃으신 노란 리본은 희망을 놓쳐버린 우리를 질책하고만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절규를, 창문 밖에선 구하러 온 고무보트가 곧 그들에게 희망의

손길이 되어 줄 거라 믿었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던 그 순간의 아연함을. 우리가 이렇게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이젠 그들에게 전할 길조차 없습니다.

물에 잠겨 가는 그 순간에도 아이들은 남을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른 반 친구들은 무사하기를, 그리고 '아멘'으로 청하고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바칩니다. 우리들은 그런 기도를 뒤늦게서야 전해 들었고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물에 잠기는 아이들을 보며 심장은 다 녹았고, 남아있는 우리들은 '입 다물라'는 세상의 질서에 길들여진 탓에 이제 그들에게 영원한 빛을 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란 리본을 끈질기게 달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1세기에 그것도 전 세계의 IT 산업을 이끈다는 나라에서 바다에 기울어진 배 한척 속에서 실종된 사람들 중 한 명의 생존자도 없다는 이 아이러니한 사실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4월 16일 출근과 동시에 켜 컴퓨터 화면에는 커다란 유람선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전원 구조'라는 보도가 들려 '한국은 역시 뭐든지 신속하다'고 마음을 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나는 민들레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주홍색의 구명조끼는 더 이상 배

에서 나오지 않았고 배 안에는 에어포켓이 형성됐을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만 흘러나왔습니다. 실종자 명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고등학교 학생들은 나의 아이가 될 수 있고 예전의 나 일수도 있었습니다.

종일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점점 가라앉는 배를 따라 우리들의 양심도 물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심해의 바닷물이 갑자기 열린 문으로 들어 차며 발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가슴으로, 드디어 턱까지 차 오르는 차디찬 죽음의 손길을 피해 물에 젖은 채 아이들이 실종자들이 살고 싶어서 위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들은 기도조차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를 옆에서 보는 것은 고통입니다. 친구를 떠나보내는 것도 고

통입니다. 살아 있음에 감사하다는 것은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공포입니다. 지금 살아 남은 단원과 학생들이 느낄 죄의식은 어찌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클 지도 모릅니다. 이들 살아남은 학생들은 살아남아서 죄송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죽어가는 친구들을 두고 도망쳤다는 죄의식이 평생을 지배할 것입니다.

민들레 홀씨를 단 노란 리본은 작은 희망의 등불로 오늘을 표류하는 한국을 구원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들을 가슴 속에서 떠나 보내는 절망이 꽃이 되어 우리 가슴에 다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하미혜 세시리아 (5구역 3반)



# 힘들 땐 성모님의 망토 속으로

레지오 전 단원 피정인 10월 26일 순교자의 모후 꼬미시움과 3개의 꾸리아 간부들의 빈틈 없는 준비로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본당 주일 교중미사 집전을 보좌 신부님께 맡기고 브린젤리 피정지 이 먼 곳까지 오신 주임 신부님의 사랑과 열정, 전날 밤늦게까지 고해성사 주시고 주일 아침 승리의 기사처럼 달려오신 주임 신부님께 뜨거운 박수를 아낄 수 없었습니다. '레지오의 질적 향상과 소공동체와의 상생' 주제로 토론 대회를 개최하고 진행까지 맡아 주시어 특유의 유머로 레지오 단원들에게 엔돌핀까지 줌으로 주셨으니 주임 신부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얼마 전 파푸아 뉴기니 방문 후 몸살 나시지 않으심이 기적일 수 밖에 없는 원장 수녀님의 정성스런 특강과 아름다운 찬미성가 플룻 연주, 아침 저녁 함께 드린 성무일

도 등으로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한 1박2일의 피정이었습니다. 원장 수녀님의 특강 주제인 '나비효과'는 일상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진솔한 말씀이었고 수도생활 힘든 순간마다 주님께 드린 기도로 극복한 기쁨의 체험담 등 모든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성의 이슬방울로 스며들었습니다.

피정 기간 중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레지오 활동 19년의 순간 순간이 영상처럼 스쳐 지나 갔습니다. 어느 맥에선 따뜻한 대접을 받기도 했고 어느 맥에선 문조차 열어주지 않아 발길을 돌려야 했던 마음 아팠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옛날 함께 활동했던 중년의 자매님들이 황혼의 나이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레지오의 버팀목으로 굳건히 서 계시고 물질만능과 빠른 과학시대에 청년 단원들로 활동하는 젊은 단원들을 볼

때마다 고마워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은 저의 마음인데 성모님께서는 얼마나 더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기억에 남는 것은 피정에서 묵주기도 때 선한 눈을 가진 개 한 마리가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 성전에 들어와 여기저기 우리 사이로 조용히 다니는데 그 모습이 그저 평화스럽고, 우습기도, 사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신부님은 파견미사 때 강론에서 '레지오는 사랑을 위해 자신을 성화하고 헌신으로 하느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하느님 사랑을 전하러 성모님과 함께 다니는 우리 레지오 단원들의 피와 땀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더라도 성모님께 의탁하고 일어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위험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성모님 망토 안에 숨겨 주시길 두 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 주님!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생의 터전 브레시디움 단장 박명숙 마리아 막달레나



##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미사 안내

- 특전미사 : 토요일 오후 4시(초등부), 5시30분(중등부), 7시30분(청년부)
- 주일미사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30분, 오후 5시30분(영어), 오후 7시30분
- 시티미사 : 오후 5시 (St. Peter Julian's Catholic Church, 641 George St Haymarket NSW 2000)
- 평일미사 : 월 7:30pm / 화 7:00am / 수.목.금 9:30am, 7:30pm / 토 9:30am
- 차량운행 : 매주일: 리드컴(8:30am, 9:40am, 10:15am) 이스트우드(9:30am) 캄시(9:30am)  
평 일: 리드컴(수, 목, 금 7:10pm)
- 문 의 : (02) 8756 3333 / email : info@sydneykcc.org

가톨릭 교우는 미사 참례, 성사생활과 기도생활에 충실하여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 하셨듯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가톨릭신문은 교우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신앙 체험, 레지오 및 소공동체 활동, 함께 나눌 만한 이야기, 신앙생활 수기 및 수필 등에 대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무실 / TEL. 02 8756 3333 E-Mail. info@sydneykcc.org

**HB Music College**  
스트라스필드 13 Abbotsford Rd, Hombush  
Website [www.hbmusic.com.au](http://www.hbmusic.com.au)  
E-mail [info@hbmusic.com.au](mailto:info@hbmusic.com.au)  
대학입시, HSC, 음악영재, 각종 콩쿨지도  
AMEB GRADE 시험 본원에서 직접 실시  
**0433 534 881** 원장 허마리아  
**9745 5353** 부원장 허난

**이사/물류 전문업체** 주식회사 협회등록 1호  
**한진운송**  
이사는 역시 한진이 최고! 이사에 관한 모든 문의 환영  
**최다차량 보유 8대**  
최대형 10톤, 9톤, 6톤, 5톤, 4톤 트럭 2대, 밴 2대 보유  
**7개 라인** **0431 24 24 24**  
대표 **허요셉** **9648 2424**

**한진IT**  
\* 서버, 네트워크, 컴퓨터  
\* 키폰, IP-PABX, 070전화  
\* 웹 서비스, Google 상위등록  
\* TPG 인터넷  
**www.hanjin.com.au**  
**허 안토니오** **02 8064 7466**  
Manager **070 7899 4400**

**TRUE ROSES**  
각종 화환 / 웨딩전문  
Shop 19/222-230 Church St. Paramatta  
**9633 1616**  
**0423 832 854**